

‘100인의 희망 릴레이 인터뷰’ 펼치는 이정현 씨

“한명 한명 꿈 모이면 꿈꾸던 세상 오지 않을까요”

“작년 대선이 끝난 직후 광주는 제가 30여 년간 살아온 곳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상실감에 빠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광주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광주, 100인의 꿈 릴레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해 12월22일 동구 총장주 광주우체국 앞.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전 경찰대학교 교수

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거라고 한 것이다.

샌드애니메이션으로 알려진 주홍 작가를 비롯해 음악치료연구소 이미경 박사, 전국에 두 곳 밖에 없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씨 등 현재까지 14명을 만났다. 지난 5월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해 아욕을 드러내는 중국과 일본에 맞서 109명이 부른 아리랑-한국인의 얼'(Arirang with 109

게 느낄 수 있었던 안성례 씨와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80년 5월 광주기독병원에는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려고 모여든 인파가 셀 수 없을 만큼 몰렸다고 해요. 내 아들, 내 동생이 민중화를 위해 싸우다가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려고 모인 행렬이 병원 밖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고 해요. 헌혈한 피가 많아서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피를 내어 놓겠다는 이들을 보며 이게 광주정신이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고 해요.”

광주에 희망을 불어 넣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이정현 씨는 자신을 ‘꿈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꿈 같은’ 경험도 많이 했다.

지난 2009년 1월 학생 13명과 함께 미국을 찾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마이클샌델 교수를 직접 만났다.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마이클샌델 교수는 열정 가득한 한국 학생들에게 하버드대학에서 잠시나마 강의를 들을 기회를 주면서 그곳에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어린 13명의 학생의 꿈을 응원했다고 한다.

이정현 씨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어린 시절 캐나다 대통령을 만나 외교관의 꿈을 키웠고 성취한 것처럼 아이들이 꿈을 꾸고 이루어기를 바라는 마음으

로 도전한 것이 현실이 됐다며 당시를 회상하는 것 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했다.

2010년 1월에는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만났다. 유엔본부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고, 동영상 메시지를 전달해도 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유엔본부를 찾아가 기다렸다. 하지만 로비 보안요원에게 반 사무총장이 해의 출장을 갔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그때 갑자기 반기문 사무총장이 건물 입구로 들어오신 거예요. 기적이 이뤄진 것처럼 34명의 아이가 환호하며 반기문 총장님과 만났죠.”

‘남의 꿈을 섬기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이정현 씨의 목표는 구체적이다. 올해 광주의 희망을 대변해줄 100명을 만나 2014년 그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소셜펀딩을 통해 모아진 돈으로 책을 출간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모금에 동참한 이들에게 건네줄 생각이다. 그는 출판을 위한 소셜펀딩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모금액이 채 10만 원도 되지 않지만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일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대선 직후 광주에 희망 주려 시작...인터뷰 엮어 책으로

‘소셜 펀딩’ 통한 출판기금 모금...참여시민에 무료배포

이자 범죄심리학자 표창원(47) 씨와 ‘프리허그’를 하기 위해서였다. 구름때 같은 인파 속에는 이정현(32)씨도 있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후보가 탈락하고 광주의 분위기가 너무 우울했어요. 표창원 씨를 만나 울고 웃는 이들을 보며 광주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만나 희망을 찾기로 마음 먹었죠.”

그는 7년 동안 일했던 광주YMCA를 떠나 ‘광주, 100인의 꿈 릴레이’를 시작했다. 광주에서 희망을 갖

KOREANS (Korean's Soul)이란 제목의 동영상상을 올린 고등학생 박경민 군(본보 4월26일자 18면)을 시작으로 100명을 인터뷰 할 계획이다. 동구 대인시장에서 ‘헤프는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100원 밥집을 운영했던 김선자 씨(본보 6월12일자 9면)를 포함해 강운태 광주시장 등 각계각층 인물을 만날 예정이다. 이정현 씨는 ‘100인의 꿈 릴레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광주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많이 얻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 경험하지 못해 어렵듯이 생각하던 5·18과 광주정신에 대해 생생하

담양 농어촌공, 포도농가 일손돕기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조규정) 직원 22여명은 지난 24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담양군 고서면 포도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지사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전기공사 전남도회 노후설비 무료 개·보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류재선) 전기사랑봉사단은 지난 25일 여주시 서강동에서 노후불량 전기설비에 대한 무료 개·보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전 여주시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20kg) 30포대를 전달했다. <전기공사 전남도회 제공>

“난치병 어린이·친정 부모 모시기 지원”

국제로타리 3610지구 이성현 신임 총재

“23년의 로타리 클럽활동에서 익힌 봉사 정신을 살려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는데 온 정열을 쏟겠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1년 임기로 국제로타리 3610지구 총재로 취임한 이성현(58·장흥군 관산읍 산동마을)씨.

이성현 총재는 10여년 전인 1990년에 장흥군 관산읍 로타리클럽에 입회했다. 이후 1998년 회장을 시작으로 2008년에 3619지구 총재 보좌역을 거쳐 도내 여수, 순천, 광양시를 비롯한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등 13개 시·군, 79개 클럽(3500명 회원) 총재로 선출됐다.

이 총재는 그동안 묵묵히 주변에 있는 소외계층과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선형을 이어와 ‘기부천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여 양식업을 하며 지금까지 30여년간 이 총재가 기부한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금

액만도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친구들을 때면 부러워하면서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어려움을 절감했기 때문에 기부와 나눔을 돕는 것이 숙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사회봉사 책임자로 다하겠습니다.”

이성현 총재는 지난 201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국제로타리 본부와 국내에서도 2차례에 걸쳐 연수과정을 받았다. 이 총재는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17개 지구 지원활동과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사업, 다문화 가정 합동헌례식 및 친정 부모모시기 사업, 불우 이웃 장학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도시공사 경영혁신 ‘최우수상’

광주도시공사가 25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주관하는 2013 하계학술대회에서 경영혁신 부분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7회째인 하계학술 대회는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경영혁신사례를 발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공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괄목한 만한 경영성과를 이뤄낸 점과 내부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점 그리고 임직원 스스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심사는 경영혁신 내용과 추진성과, 타 공기업 전과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계획’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엔 ‘생산적 조직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경영혁신상을 받게 됐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곡성농협, 매실농가 수확작업 돕기



곡성농협(조합장 방기운) 임직원과 주부대학, 부녀회, 여성산악회원 등 60여명은 지난 24일 오곡면 농가 2곳에서 매실 수확작업 일손 돕기봉사를 가졌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동부경찰, 지구대 방문 경찰관 격려



광주동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지난 25일 금남지구대 및 일선 치안인형 방문,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최근 발생한 경찰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과 범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경찰 제공>

삼성전자, 광주문화재단에 2천만원 기탁

광주문화재단은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의 ‘광장음악회’에 대한 지정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지정기탁된 2000만원은 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야외 클래식 음악회 ‘광장음악회’의 지속적인 공연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된다.

지난 2006년 급남공원에서 첫 무대를 시작한 광장음악회는 연출자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오다 올 들어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지난 15일 공연부터 후원에 나서며, 올 연말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시민들에게 클래식 공연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이보라기자 boram@



사건 왼쪽부터 정찬경 광장음악회 대표, 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정광명 삼성전자 광주지원봉사센터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기평·김영예씨 장남 윤균(삼성화재)군 장형래(TBN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 전 편성제작국장)·오정숙씨 차녀 여원(KT)양=29일(토) 오전 11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권오을(울산·개인사업)씨 차남 혁현(울산경찰서 근무)군 이범영(왕일잔디 조경)·김선희(웰티스사업)씨 장녀 소미(울산 경찰서 근무)양=30일(일) 오후 1시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 3층 로즈홀.

▲심종식(전 무등일보 지역사회복지국장)·박의숙씨 장남 상훈(한의사)군 박길수·최필경씨 장녀 이름(한의사)양=30일(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팔레드시즈 노블레스홀.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26회 동창회 월례회(회장 김성근)=26일(수) 오후 6시 30분

영미오리탕 062-362-5252.

▲복성중 제27회 동창회 월례회(회장 김연중)=27일(목) 오후 7시 영미오리탕 062-362-5252.

▲재광고창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기동) 정기총회=27일(목) 오후 7시 광주 NC(구 현대) 백화점 9층 현대관 011-609-2327.

종친회

▲농성구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구연수) 6월 월례회 및 자유회=29일(토)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062-381-0019, 010-8010-1777.

향우회

▲재광나주 향우회 제22차 정기총회(회장 니도팔) 겸 나주인 모두의 만남의 장=29일(토) 오후 4시 광주 알펜시아웨딩홀 062-227-888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한국 애질런트 테크놀로지 CAG(화학분석그룹)=애질런트 광주 교육장 개소, 상무지구 우정청 맞은편 창호빌딩 4층 062-376-1981.

▲‘금영컨설팅’ 체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건, 사업자 및 개인 체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이동통합교육보조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친환경영농사업단은 고연령, 저

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

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능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통 영농

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령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 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다음카페-참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정,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약동, 자살충

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

성질환, 만성난치·급원금주, 약속·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성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등 010-6609-9068.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0-610-5575.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를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진원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분=초보·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합,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광주FC 축구회원은 자영업, 직장

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양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부음

▲최용주씨 별세 병용·향란씨 부친상=발인 27일(목) 조선대병원 장

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정영태씨 별세 철·경야씨 부친상=발인 2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한성홍씨 별세 중국(조선대학교 시설관리팀)·상곡(자영업)·애령씨 부친상=발인 2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금덕씨 별세 강해용·양은·양애·현자·성자씨 모친상=발인 2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p>謹 상가 故人之 冥福을 빕니다 弔</p>			
<p>故양덕교 님(남/90세) 子/子婦: 양영기/김신례, 영식/김미자 女/婦: 양영희, 영주/백은식, 영숙/김민규 •호실: 201호 •발인: 6월 26일 •장지: 담양향회의 집 •연락처: 227-4381</p>		<p>故김양례 님(여/98세) 子/子婦: 김길환/김복남, 영현/최금숙, 병현/김인숙 女/婦: 김점자, 정숙/임상진, 선자/이현중, 월진/박현수 •호실: 401호 •발인: 6월 26일 •장지: 화순 도곡선영 •연락처: 227-4383</p>	
<p>故이승건 님(남/82세) 子/子婦: 이대림/김수진, 대우/최효순 •호실: 101호 •발인: 6월 2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故김동혁 님(남/66세) 子: 김현우 女: 김은주 •호실: 102호 •발인: 6월 2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p>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p>			